

이숙자 남원시의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연 참석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지난달 30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부부멘토 정은표와 함께하는 감성소통법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연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의 이번 방청은 지난해 이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부모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모 교육 지원에 대한 토대를 만들었으며, 이번 강연은 그 토대를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 되었기에 방청에 의미가 있다.

이날 이숙자 의원은 축사에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건강한 가정 양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전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에서도 각종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 남원을 훌륭한 부모학교의 도시, 아동을 위한 도시로 만들 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JJ 취업 서포터즈, 기업 모니터링단 발대식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3일 'JJ 취업 서포터즈(9기)' 및 '도내 우수 기업 모니터링단(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각 대표자 선서를 포함해 청년고용정책, 서포터즈 흥보 전략, 지역 내 우수 기업 현황, 채용방법의 일정 공유 순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도내 우수 기업 모니터링단(3기)은 기업탐방, 채용설명회 등 지역 내 우수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을 구축하고,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2차 심사 과정을 통해 30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JJ 취업 서포터즈(9기)는 도내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 진학적인 정책과 지원사업 등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2차 심사 과정을 통해 총 52명을 선발했다. 브이로그, 카드뉴스, 현장 이벤트 등을 활용해 9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정세연(경영학과 3년) 학생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청년 고용정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프로그램 및 지역의 우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숙경 센터장은 "JJ 취업 서포터즈와 도내 우수 기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청년 정책과 도내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목적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진로·취업 역량 강화와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에 고창인재 기우기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장학금 기탁식에는 고창상회팜푸드(대표 인사인) 500만원, 고창시니어아이스티어(이거주, 중인 차영득님) 매월 20만원(2024년 180만원), (유)문화공간(대표 유은영) 500만원, 최선인 인재양성과장이 100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창 발전을 위한 미래 주역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기탁인들은 "지역 인재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이사장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오늘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하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 진안 발전에 기여 노력할 것"

전병호 씨 10남매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진안군은 출향인 전병호 씨가 3일 군수실을 방문해 고향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935년생인 전 씨는 진안군 미령면 출신으로 일평생 공직에 몸을 담았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ه심으로 10남매와 함께 뜻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전 씨의 고향사랑과 애ه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10여년 전 본인의 본적을 독도로 옮겨 특별한 애국심을 선보인 바 있으며, 천안 전씨 종친회장을 맡아 봉사하는



등 고향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기탁식에서 전병호 씨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고향 사랑에 대한 마음은 작아지지 않는다."며 "힘닿는 데 까지 고향 진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성 군수는 "전병호 씨의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남·제주 '초광역 평생교육 협력' 첫발

전북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2일 광주, 전남, 제주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호남·제주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기관장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현웅),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춘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고석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고승한)이 참여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교류회제, 지원·정보 공유 강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호남·제주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마련되었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경계를 넘는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전북자치도의회,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3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였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제례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이다.

이번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이중학교 1~3학년 3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당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한 '개회·의사보고·3분 자유발언·조례안 제정·토론' 등의 순서

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부안)도 "이번 모의의회를 계기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의회를 찾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안전뉴스 영상 공모전 개최

남원소방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안전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어린이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교육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남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활 속 안전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예방 대책과 문제 해결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신청서 및 작품(영상)을 6월 30일까지 남원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국소아기원은 2022년 어린이 안전사고 통합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의 68.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안전사고 발생 횟수는 21,642건으로 전년도 대비 36.4% 증가했다. 공모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사건·사고·브리핑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2분이내 동영상 제작으로 남원 관내 초·중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장장 및 소방서장상을 수여하고, 최우수 팀을 지정한 교시에게도 교육장장을 수여한다.

양순주 서장은 "남원소방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위한 문화 확산 지원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전문기관 심리상담 운영

순창군이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외부 전문기관과 심리상담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은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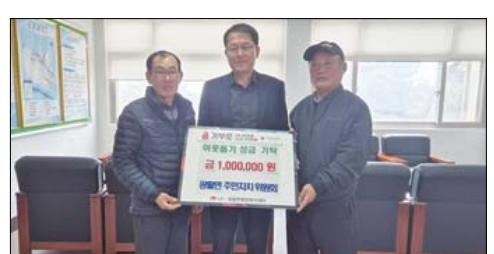
심리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고위험군 및 희망자)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으로는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4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강화해 인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직접 처리방안 검토에 참여해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관수)가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쌀달라며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으며, 성금은 광활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질 예정이다.

김관수 주민자치위원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위원들의 정성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살고 싶은 광활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년 광활면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군, 제1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참가자 모집

순창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은)은 2024년 제1회 순창군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을 볼'을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창읍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청소년과 군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다.

이번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11개 읍·면 화합 대축제인 '군민의 날'과 협업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의 유관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청소년동아리가 참여하여 체험 부스 및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대회 및 초청 공연을 마련했다.

한편,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번 다양하고 색다른 주제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행사는 포레스트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